

2022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2.10.25.	대면회의	6/10	4	2	12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류용환 위원, 정훈진 위원, 임재근 위원,
황혜진 위원, 손기배 위원, 김정동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직무대행),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시청자위원회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3	2	-	1	6	-	6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6	-	-	6

*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전월(9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현대아울렛 화재 보도> 현대아울렛 화재 보도 빨빠른 취재 좋았다. 하지만 사망 노동자 대부분 하청 노동자였는데 이 부분을 깊게 취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워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번 기회에 후속 보도를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볼 계획 <22. 10월 조치>	'22.9월
보도	<지역 축제 보도> 그동안 대표축제였던 와인축제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와인축제에 대한 특실을 따져보는 보도 필요	대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인지 지역 정체성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축제에 대해 계속 취재하겠음. <22. 10월 조치>	'22.9월
교양	<특집 다큐멘터리 시리즈화> 올해 방송했던 다큐멘터리를 모아 연말에 시리즈로 모아서 방송하면 좋을 듯	대전MBC 스페셜존을 구성해 특집으로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일목요연하게 모아 서 방송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고민하겠음 <22. 10월 조치>	'22.9월
교양	<과인은 그러하오> 과학 상당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용은 가벼운 가십거리가 많았고 정규화 된다면 과학인 출연자 다양화했으면	향후 정규화 된다면 과학의 진지함과 예능의 가벼움을 적절하게 혼합할 예정이고 과학인 출연자도 다양화하겠음. <23년 정규 프로그램 방송시 조치>	'22.9월
교양	<시시각각>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점은 좋은데 논의나 해결책도 제시해 주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시시각각은 계속 고민하고 있음. 시의적절한 주제를 잘 잡고는 있는데 치열한 공방이 빠져있어서 패널 구성을 보강할 예정 <22. 10월 조치>	'22.9월
기타	<후원명칭 사용 행사> 대전MBC를 공동 주최로 하는 기관 행사 비판 내용 있었음. 후원 명칭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사후 관리 필수적으로 해야	공동 주최 행사는 시립무용단의 홈커밍데이 성격 행사로 현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음. 추후 후원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음 <22. 10월 조치>	'22.9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2년 10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	대덕연구개발 특구협의회	과학기술단체	남/1961 21.05.01~23.04.30
부위원장	이희중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컨텐츠과 교수	대전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소외계층대변	남/1964 21.05.01~23.04.30
위원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소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단체	남/1978 21.05.01~23.04.30
위원	정훈진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남/1967 21.05.01~23.04.30
위원	황혜진	대전공공미술원 대표	대전동구문화원	문화단체	여/1977 21.07.01~23.04.30
위원	류용환	한국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한국소비자모임	소비자단체	남/1960 21.11.01~23.04.30
위원	손기배	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	굿네이버스 충청본부	인권단체	남/1983 22.03.01~23.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여/1966 22.05.01~23.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남/1977 22.05.01~23.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여/1964 22.05.01~23.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독립서점 보도> 지역의 서점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취재한 건 좋았는데 다른 사례 등 추가적인 보도를 이어나갔으면	회의록 첨부			
보도	<UCLG 보도> UCLG행사에 대한 취재는 충실히 했는데 UCLG의 결과물인 '대전선언' 협약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워	회의록 첨부	○		
보도	<무료사진 촬영, 경품행사 보도> 제주도 무료 여행 광고 기사, 가전매장 경품 행사 등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집중 취재 있었으면	회의록 첨부	○		
교양	<모두의TV> -아빠와 딸의 구성이 아닌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등 다양하게 구성해 주기를...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하시는 분들의 작품 연출 부문은 너무 지루해	회의록 첨부	○		
교양	<참참참, 달콤한 칼국수> 지역을 대표하는 칼국수를 소재로 스토리를 만들어 지역성을 잘 살렸지만 전개가 너무 빠르고 갑자기 끝나는 느낌 받았고, 후속편이 있는 건지 안 내자막이 필요	회의록 첨부	○		
기타	<원도심 사라져가는 것들> 원도심에서 사라져가는 가치 있는 공간들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을 지키는데 대전MBC가 기여해주었으면	회의록 첨부	○		

-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총 6명)
류용환 위원, 정훈진 위원, 임재근 위원, 황혜진 위원, 손기배 위원, 김정동 위원

- 회사 참석자 (총 6명)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직무대행,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략기획실 부국장 이은표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열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해 주셔서 과반 구성이 됐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과 최병욱 시청자위원장님 그리고 이희중 부위원장님 모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0월에 보직국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프라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인프라국장입니다. 편성국장은 곧 선임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욱 기획제작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 의견 접수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은 총 2건입니다. 하나는 AM 방송 운용 휴지 관련 문의 1건, 그리고 홈페이지 편성표 수정에 대한 의견 제시 1건입니다. 자세한 건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을 대신해 서주석 전략기획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서주석입니다. 오늘 김환균 사장님께서 본사 일정이 있으셔서 위원님들과 다른 날짜로 회의 일정을 조율했는데 일정이 서로 어긋나고 해서 본래 예정된 대로 오늘 마지막 주 화요일에 회의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고언을 아끼지 않고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운영내규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위원들 의견 교환)
그러면 류용환 위원님께서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용환 위원장 직무대행

류용환입니다. 회의 관련하여 일정 조정을 하는 것 같더니 당초 날짜를 고수해서 회의를 하는 걸 보니 많은 사정이 있었는가 봐요. 회사측이나 위원님들도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가을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데 모두들 가을을 만끽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청자위원회 직분에도 기여해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임재근 위원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저는 주로 특집 프로그램들을 모니터 했는데요. 10월에는 특집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시 보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의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개 지역의 프로그램들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트렌드나 정보들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마치 ‘6시 내고향’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기본 구성이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최근 4주에 걸쳐 아빠와 딸이 출연하면서 과거 영상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과거 영상들을 되돌아 봤을 때 추억에 젖는 것 같아서 또래 시청자들한테는 향수를 자극하는 좋은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빠와 함께 등장하는 딸들의 입장에서는 아빠 시대의 그런 삶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관심 갖지 않은 입장에서는 지루해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세 팀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했는데요.

한 딸 같은 경우에는 시니컬한 성격이긴 하지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어떤 딸 같은 경우는 정말 아빠의 과거 활동이나 그 시대를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진행자 두 분께서 커버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팀이 출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빠와 딸 말고 아빠와 아들 편이라든지 특집 편으로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많은 출연자들이 평소 팍팍한 삶 속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웹 드라마 ‘찹찹’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우선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서 갈국수가 있는데 갈국수를 소재로 한 측면에서는 지역성을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짧은 스토리이다 보니까 약간 전개가 빠른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웹 드라마의 특성으로 이해가 됐고, 지역의 소재를 활용해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파일럿처럼 진행되는 건지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류용환 위원장 직무대행

임재근 위원님께서 '모두의TV'하고 웹드라마 '찹찹'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의TV'는 가정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상 깊었다는 말씀과 향후 기대를 표명하셨습니다. 웹 드라마는 요즘 아이들한테 음식과 단편적인 영상들이 상당히 호응을 받는 것 같은데 좋은 기획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동 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위원

이번에는 보도 중심으로 내용들을 봤는데요. 언론의 역할은 사회문제를 다양하게 확인하고 취재를 통해서 정책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부분은 충실하게 지켰다고 봅니다.

대덕연구단지외의 노동 환경은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과제도 똑같이 구조조정을 해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갖는 시제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아울렛의 큰 화재 참사가 있었는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 실제 제도나 규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지속적인 취재를 한 부분 그리고 충남 지역의 모듈교실 관련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이후 충남 교육청에서 개선하기로 했다는 것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독립서점 관련한 문제점... 지역의 서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 서점들도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실제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취재한 것은 좋은데 다른 사례나 좀 더 추가적인 보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UCLG 관련해서도 취재는 충실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대전선언으로 얘기되는 UCLG의 결과물인 협약 내용이 언급 안 된 부분... 물론 '시시각각'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언급이 되긴 했지만요. 실제로 지역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등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민주주의 강화라는 내용들이 대전선언에 담겨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보도하고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더 좋은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지방 의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몰아서 유튜브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긴 하는데 어제 공청회가 열리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류용환 위원장 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김정동 위원님께서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새롭게 수립되고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단지 내 노동환경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침 최근에 노동 현장에서 사고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사를 보니까 모듈건축 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학교 건물에 대한 걱정스러운 지적 말씀을 해 주셨고 이외에도 독립서점이라든지 UCLG 대전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높은 안목을 가지고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고 계신데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할 때 저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숙제를 안 하고 학교 가는 기분입니다.

3~4일 전 뉴스에 무료사진을 찍어준다는 바가지 상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2천 건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저희 딸도 당했는데요. 유사한 사례로 SNS상에서 대전 시민과 제주 도민의 교류라는 이름하에 매일 무료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는 광고가 계속 뜨고 있어요. 상당히 장기간 광고가 나오는데 무료 광고사진 기사가 나오고 했으니 아울러서 그런 쪽도 한번 취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싶고요

같은 차원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는 가전매장, 심지어 아파트 분양 현장이나 그리고 아주 작은 재래시장에서 경품 행사들을 많이 해요. 주변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한 행사가 진행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경품들이 소비자한테 지급이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소비자나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내부 직원들이 나눠 갖고 일부만 시민들한테 할애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기만이고 사기행위이니 이 부분에 집중 취재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과인은 그러하오' 종영이 됐는데 4회분만 하고 종영된 것 같은데 종영 사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종영이 돼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로 종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기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기배 위원

저는 그동안 특집방송 위주로 시청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모두의TV' 프로그램을 시청을 했습니다.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많이 시청을 했고 그 소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10월 22일 방송분을 봤는데 약간 뉴미디어 방식으로 구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러 편의 작품들이 있는데 작품별로 짧지만 간단한 소감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드라마 '달콤한 칼국수'에 관한 겁니다. 요리잡지 회사에 근무하는 주인공이 대전 지역에서 요리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웹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색달랐고 연기자분들이 연기를 잘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 했었는데 마지막에 드라마가 갑자기 끝나버리더라고요. 이어지는 스토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후속편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었어요. 안내 자막이라든가 추가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시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제시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두의TV 관련해서는 현대 무용과 스트리트 댄스하시는 분들이 음악에 맞춰서 본인의 작품을 연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진지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연출작품에 대해서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 습니다. 의도된 연출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날로그 작업실 이야기는 뉴미디어의 느낌이 약하게 들었던 섹션이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전문가 분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었고 상대적으로 날방송의 느낌은 가장 약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목어봐 이런 짤집은 가장 날방송의 느낌이 강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브이로그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걸로 봤고 출연자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고 텐션이 올라가 있으신 상태로 방송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다소 산만한 느낌이 있었다.

또 거제 지역의 숙소도 가고 그 지역의 식당도 가고 하는 관광지의 내용이었는데 어느 숙소인지 어느 식당인지 어느 관광지인지에 대한 팁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얼마짜리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맛이 어떤지 그 식당의 특징이 뭔지에 대한 정보도 주었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색다른 방송의 느낌이었고 요즘 뉴미디어를 통해서 정규 방송 채널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방송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용환 위원장 직무대행

손기배 위원님도 임재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모두의TV'에 대해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달콤한 칼국수는 호평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표현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황혜진 위원

얼마 전에 대전MBC 라디오에서 연락이 와서 잠깐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내용은 원도심에서 사라져가는 공간들... 얼마 전 동화극장이 문을 닫았는데 1952년도에 문을 열고 지금까지 극장이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약간 변질이 돼서 성인 영화들을 개봉하고 했지만 그 분이 최고령 마지막 생존하시는 영사 기사님이예요. 어떻게 보면 무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으신 분들인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원도심에 대한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소제동이 개발되고 관사촌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여러 공간들이 민간의 소유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동화극장이 사라져가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 가슴에 구멍이 하나씩 뚫리는 것 같아요. 원동에 마지막 남은 철공소와 최초의 구세군 교회가 있고, 최초의 새마을금고 자리가 있고, 최초의 원동 동사무소 자리가 있고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제가 10년 동안 전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나마 문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언론사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원도심에 남아 있는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임재근 위원님도 한국전쟁 등을 기록하시면서 가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많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언론사 쪽에도 관심을 갖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더 이상 동화극장처럼 무너지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2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와요. 거기에 오시면 과거의 나선형 공간이라든지 옛날 극장식의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대전MBC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요.

대전역 앞에 관사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세요. 평수로는 한 4평에서 5평인데 그 공간이 숨겨져 있고 거기에 목조 전신주가 아직도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재청 재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창고로 쓰고 있는데 바닥을 시멘트로 부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우물자리거든요. 제가 몇 분을 모시고 갔는데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역의 가치 있는 공간들과 건축물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전MBC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전의 미래와 문화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용환 위원장 직무대행

황혜진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동화극장 영사기사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다는 말씀 저도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네요. 원동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여러 시설물들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 방송사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훈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정훈진 위원

네 반갑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뉴스를 모니터 해봤는데요. 항상 느끼는 생각이기도 하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 보면 대전MBC 뉴스의 객관적인 보도와 정론에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보도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내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대전MBC뉴스에 대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대전MBC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용환 위원장 직무대행

네 감사합니다. 대전MBC 뉴스에 대한 외부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은 회사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직무대행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모두의TV'는 지역 5개사 공동제작 프로그램이고, 취지는 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를 옴니버스 식으로 합쳐서 방송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벌써 30개 가까이 방송을 했거든요. 각 지역마다 지역성을 드러내거나 콘텐츠를 모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딸과 함께'를 했는데요.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요즘 OTT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50, 60대의 부모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OTT로 접근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MZ세대인 자녀들은 부모 세대들이 과거에 겪었던 영상들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MBC 콘텐츠를 중심으로 세대 간의 공감을 유도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기획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16회 정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딸과 아빠뿐만 아니라 딸과 엄마쪽도 섭외를 해보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간에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딸들이 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진행자들이 빈틈을 채워줘야 되는 게 많은데 딸들의 개인별 성향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찰찰찰, 달콤한 칼국수'는 칼국수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음식을 웹 드라마로 제작을 시도했구요. 아무래도 웹 콘텐츠다 보니까 기승전결을 짧은 시간 안에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전개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기획 의도는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PR이든지 캠페인 방식도 있겠지만 웹 드라마라는 그릇으로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각 지역의 특산품 예를 들면 금산 인삼, 홍성 예산 사과 이런 농산물이든 어떤 장소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제작지원 형태나 협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기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찰찰찰 달콤한 칼국수'는 급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

니다. 이 부분은 제작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자막은 저희 불찰이 맞습니다. 5편의 숏폼 콘텐츠라고 해서 짧은 5개가 이어져 있는데 안내 자막 고지는 이번 주부터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기배 위원

그러면 '모두의TV'가 '딸과 함께'였는데 이번에 다섯 편만 '찰찰찰 달콤한 칼국수'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욱 편성국장 직무대행

저희가 그 때 그 때 생산한 콘텐츠들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5개는 '찰찰찰 달콤한 칼국수'로 나가고 '딸과 함께'는 다시 7편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타사에서 제작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타사의 편성국장이나 제작부장님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인은 그러하오'는 지역방송 제작지원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프로그램인데 파일럿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4회로 예정돼 있었던 거고요. 평가가 좋으면 내년에 레귤러 프로그램으로 제작 지원을 받게 되면 정규 편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 발전시켜서 기획안을 만들어 내년에 제작 지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시대공감'에 황혜진 위원님께서 출연해서 원도심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대전MBC가 지역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도심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에 대한 해답을 누구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다 같이 고민해서 해결방법에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도심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도 관심도 있고 해서 일회성이 아닌 시리즈로 기획할 생각이요 제작진하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 위원

한가지 예로 100년 된 공장 건물 하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300평 정도 돼요. 톱니 모양의 공장이거든요. 그걸 아무도 몰랐는데 무너뜨리고 있는 날 제가 난리를 쳤어요. 공사 중지시키고 소장님한테 집주인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하고 붙잡을 수 있는 곳이 언론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땐 대전MBC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알고 있는 언론사인 충청투데이에 그 가치를 설명했더니 다음 날 기사를 내셨거든요. 그랬더니 동구청에서 이걸 멈추셨어요.

저는 언론사가 가치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판을 해서 행정이 멈추는 걸 보면서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7평정도 되는 그 관사를 없애는 것도 언론사를 통해 멈췄어요. 문화방송이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리즈로 기획하신다는 말씀 너무 기대가 돼요.

임재근 위원

'모두의TV'에서 '딸과 함께'가 4편이잖아요. 지금 2편이 진행됐고 나머지 2편이 남은 상황에서 '찰찰찰 칼국수'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심규성 기자가 두 편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끊기는 게 아닌가 해서요.

이상욱 편성국장 직무대행

총 20회 예정인데 아빠와 딸 한 조로 5명이 나오는데요. 4명까지는 촬영이 이미 끝났고 한 팀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지상파 송출은 업로드 이후나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찰찰찰 칼국수가 뒤로 밀리면 선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최기웅 보도국장

김정동 위원님께서 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대덕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노동 환경이 결국 연구 현장인데 최근에 쇠신이나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은 거세지고 있고.

대덕연구단지가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을 정도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출연연 중심의 국가 주도 과학 성장이 향후에는 민간의 산업화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동안 대한민국 과학 성장의 주춧돌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연구 현장이 흔들리는 것은 되풀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고 수행해야 될 과제들이 결국에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흔들리고 결국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것들이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왜 노벨상을 못 받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벨상이라는 것이 단기간의 투자로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끊임없는 연구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데... 실제 연구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 환경에서 조차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그런 장기적 연구 과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주의 깊게 취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PBS제도 같은 연구과제중심 수주제도는 십 수년 전부터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달라지게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연구 현장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아울렛 화재사건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수사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사의 결과만 주목할 게 아니라 실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어제도 화재 방화 셔터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해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열악했던 80년대 건축물의 화재 참사들이 많았지만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대식 건물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는 건 여러 가지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분과 의문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동환경에 대한 미비점들이 없었는지 의문을 밝히는데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교실 건은 용산초가 아울렛 화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현재 등교 거부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교실 환경이 안전한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모듈 교실의 70%가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이런 법적인 미비점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니까 교육청에서 법적인 기준은 없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대응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취재하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서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역 경제 이슈, 지역 상공인들의 이슈를 다룰 때 아쉬운 부분들이 피상적인 것만 다루지 않고 대안으로 귀결될 수 있게 기자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더 노력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UCLG 행사 관련해서 대전선언이 상당히 의미있는 선언이고 앞으로 확대가 되면 교토의정서 처럼 지역이 들어가는 행사라든지 국제적인 도시의 생태학적인 선언이 있을 때 인용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인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감대 있게 우리가 보도를 해야 됐는데 저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주셨는데 대전선언을 중심으로 도시가 구조적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느냐 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최근에 수당에 대한 이슈들과 코로나 7차 재유행 까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해외 연수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건 아닌데 외유성 연수로 빠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연수를 통해서 배운 것과 현지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어떻게 의정에 반영되는지 피드백 제도가 마련될 수 있게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용환 위원님께서 소비자 쪽에서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효'라든지 '정' 마케팅을 이용해서 무료사진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소비자 피해도 있지만 실제 나눔이라든지 무료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선의까지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품과 백화점 경품들... 과거에 자동차가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인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경품 행사를 하고 실제 당첨자가 선정됐는데 말을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첨자가 변호사라서 결국에는 업체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는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이고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인데 임재근 위원님께서 오마이뉴스 살아있는 역사교과서 70차례 기획 보도로 목요언론인클럽 3분기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은표 간사

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오늘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주신 류용환 위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류용환 위원장 직무대행

어려운 상황속에서 참석을 해서 회의가 무난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쁜 가운데 나들이도 하시면서 가을을 즐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어서 대전MBC 사장님을 대신해서 서주석 전략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게 저희가 들었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권 소식을 차치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전쟁으로 상당히 경제난이 심각하고, 국내 금리 인상 등 어려움도 상당히 많은데 결국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방송사도 어려움 속에서 공익보다는 수익에 눈을 돌리게 되는 유혹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 응원을 듣고 힘을 내서 흔들리지 않고 지역성과 나눔의 가치 그리고 함께하는 공존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대전MBC가 시청자들께서 명령하신 말은 바 소임을 다 해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 또 고언과 조언이 어느 때보다도 더 힘이 되는 의미로 들려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풍성한 회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상으로 10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